

# 제주공항 승객 탑승수속 절차 '구멍'

## 제주항공 어제 승객 잘못 탑승시켜 램프리턴... 두차례 항공권 검사 무사통과

제주에서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항공기에 승객이 잘못 탑승해 항공기가 활주로를 향해 가다가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발생했다.

13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5분쯤 제주를 출발해 청주로 가려던 제주항공 7C852편이 출발을 위해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다가 탑승장으로 되돌아 오는 이른바 램프리턴을 했다.

제주항공은 비슷한 시각 제주에서 청주로 가는 다른 항공사의 항공기를 예약한 A씨가 7C852편에 잘못 탑승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탑승장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7C852편은 A씨를 탑승장에 내려준 뒤 이날 오전 9시55분쯤 제주를 떠났다.

항공사가 승객을 잘못 태웠다면 2단계에 걸친 승객 확인 절차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항공사는 1차적으로 탑승구(게이트) 앞에서 항공권을 검사하고, 승객이 비행기에 오를 때에도 좌석 안내를 위해 항공기 입구에서 2차적으로 항공권을 확인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잘못 탑승한 A씨와 이름이 같은 승객이 7C852편을 예약한 상태였다"면서 "A씨를 잘못 탑승시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B씨는 "활주로를 가던 도중에 갑자기 승객 리스트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며 "이후 지상직 제주항공 직원이 항공기에 올라타 잘못 탑승한 승객과 몇마디 이야기를 나눴고, 곧바로 해당 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왜 승객을 잘못 태웠고, 또 어떻게 그 사실을 도중에 알게됐는 지에 대해서 제주항공 측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제주항공 램프리턴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국토

교통부 관계자는 "만약 업무 소홀로 승객을 항공기에 잘못 태웠다면 항공보안법에서 규정하는 항공보안 절차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항공사에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승객의 항공기 탑승 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04년에는 제주공항에서 한 대학생이 탑승권 없이 항공기에 몰래 탑승한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이 없던 흰목딱새(가칭)가 최근 마라도 인근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다.

사진=국립생물자원관 제공

# 마라도서 미기록종 '흰목딱새' 최초 발견

## 中 내륙 고산지역 텃새로 '길 잃은 새' 추정 국립생물자원관 "새 이동 연구 학술적 의의"

마라도 인근에서 미기록종 흰목딱새(가칭)가 처음 발견됐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인근에서 지금까지 국내에서 기록이 없던 흰목딱새를 지난달 28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인된 개체는 본래의 분포권을 벗어나 우연히 찾아온 '길 잃은 새(미조)'로 추정되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이 올해 수행 중인 마라도 지역 철새조사 과정에서 관찰됐다. 이 종은 중국 중부, 티베트, 히말라야 등 중국 내륙 고산지역에 텃새로 분포하며, 우리나라에 많이 서식

하는 딱새와 가까운 종이다.

연구진은 수컷의 목 부분이 하얀색임을 참고하여 국명을 흰목딱새(가칭)로 정했다. 흰목딱새의 몸길이는 15cm 정도이며, 딱새와 비슷하나 앞목이 흰색이고 날개의 흰색무늬가 크다. 암컷은 담갈색을 띤다.

이번에 발견된 개체는 암컷과 유사하나 턱의 흰색부분이 담색을 띠어 어린 새의 특징을 보인다. 발견 장소인 마라도는 과거 푸른날개딱새, 붉은가슴딱새, 비둘기뺨딱새 등이 처음으로 기록된 바 있다.

이병윤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국가 생물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미기록종 발견은 매우 중요하며, 미기록종을 발견할 가능성이 다소 희박한 조류 분야에서는 새들의 이동연구 등 학술적으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강희만기자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 사건기록 조작 경찰 검찰, 징역 2년 구형

제주서 2년 이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처리된 것처럼 조작한 혐의(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에게 면직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박준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강모(49·경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강씨는 지난 2015년 발생해 자신에게 배당된 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 2건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다 2년 뒤인 2017년 12월 키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처리가 된 것처럼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 12일 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은범기자

# 해상에 경유 유출 델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3일 해상에 경유를 유출한 혐의(해양환경관리법 위반)로 서귀포선적 어선 A호(29t) 기관장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9일 서귀포항내에서 정박 중인 어선에 연료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해상에 20ℓ의 경유를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 한국교총 스승의날 교원인식 설문조사 '둘중 한명 "최대 고충 학부모 민원" 87% "사기 떨어져"

## 87% "사기 떨어져"

교사들은 가장 되고 싶은 이 시대 교사상으로 '학생을 믿어주고 잘 소통하는 선생님'을 꼽았다. 스승의 날에 제자들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선생님, 감사합니다"였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13일 발표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8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로, 각각 69.9%(복수응답)와 49.5%가 선택했다.

이번 설문에서 교사 10명 중 9명 정도는 최근 교원들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학부모 민원 및 관계유지(55.5%, 복수응답)'를 교직 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조사 결과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화했나'를 묻은 문항에 87.4%가 '떨어졌다(대체로 떨어졌다 41.6%, 매우 떨어졌다 45.8

%)'라고 응답했다. 교총은 2009년 같은 문항으로 처음 실시한 설문 결과 '떨어졌다'고 답한 비율(55.3%)보다 10년 사이 32%p 증가하는 등 역대 최고치를 보여 특단의 사기 진작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잘 보호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65.6%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37.3%, 전혀 그렇지 않다 28.3%)'고 답해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특히 교총은 이같은 사기 저하와 교권하락이 교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학교 교육과 학생 지도에 '냉소주의' '무관심'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사기 저하, 교권 하락으로 인한 가장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 교원들이 꼽은 1순위는 '학생 생활지도 기피와 관심 저하(50.8%)'였다.

이번 조사는 모바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 95%에 표본 오차는 ±1.32%포인트다.

오은지기자

# 위장전입 논란 동북리장 선거 '무효'

지난해 위장전입자 개입 의혹이 불거진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이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외진 부장판사)는 구좌읍 동북리 마을주민 A씨 등 2명이 동북리를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동북리는 지난 1월 10일 치러진 이장 선거에서 2명의 후보가 출마해 512명이 투표에 참가, 256표를 획득한 B후보가 251표를 얻은 C후보를 5표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나머지 5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동북리 향약에 따르면 투표권을 가진 주민은 ▷주민등록이 동북리에 돼 있는 자 ▷본적지 및 거주지가 동북리이고, 동북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동북리가 주민등록지이기는 하지만 등록기준지는 아닌 34명이 투표를 했고, 이들이 동북리에 거주하면서 개발위원회에서 이민(里民) 자격을 인정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특히 후보자간 득표수 차이가 5표인 점에 비

취 볼 때 해당 34명의 투표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소송을 당한 동북리(이장 B씨)는 "2017년 1월 23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일 이전에 동북리에 전입한 사람에 대해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향약을 개정했다"며 "이 때문에 개정된 향약에 따라 이뤄진 선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 개발위원회의 이민 자격 인정은 요건으로 선거권을 인정할 경우가 전무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이 불가피했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2017년 정기총회에서 전(前) 이장이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전입한 사람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에 대한 특별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정기총회에서는 '정관 개정 추진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자'는 의결도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당시 이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향약 개정의 의결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한라일보 창간 30주년을 축하합니다.

친절하게 인사하고, "전세버스!" 환한 웃음으로 반기는

고객 감동을 위해 항상 친절 봉사의 정신과 안전 운행의 생활화로 편안한 여행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주) 강남투어이중원	(주) 더굿버스강동완	(주) 비너스고속관광이승익	우성고속관광버스협동조합 김형남	(주) 제주한솔투어 김택호	(주) 평화고속관광주영철
(주) 국경교통변진철	(주) 동서양고속(주) 문영기	(주) 산호관광박창현	(주) 유한고속관광정인규	(주) 중앙우등관광(주) 양성환	(주) 포니고속관광협동조합 김영석
(주) 국제교통한재갑	(주) 동양선라이즈관광고수은	(주) 삼다도고속관광(주) 박경숙	(주) 이제주관광김현희	(주) 천일고속관광(주) 최영희	(주) 한국교통김일영
(주) 그린고속관광(주) 박만해	(주) 드림고속(주) 고창호	(주) 세종고속관광(주) 박정희	(주) 이제주관광(주) 김현희	(주) 천지고속관광(주) 양대철	(주) 한라고속(주) 김용삼
(주) 금오고속관광협동조합이승만	(주) 라이온교통강근우	(주) 신가자고속(주) 부창우	(주) 인성고속관광(주) 고완철	(주) 청구관광(주) 김승준	(주) 한보교통(주) 고평원
(주) 노블고속관광변형중	(주) 메인고속관광오원석	(주) 신흥관광(주) 한희택	(주) 일등고속관광(주) 김현미	(주) 투어랜드(주) 이동현	(주) 해피고속관광(주) 강동현
(주) 노상성관광(주) 문순현	(주) 명문고속관광(주) 김희택	(주) 아리랑관광(주) 고경자	(주) 일등고속관광(주) 김현미	(주) 투어버스여행(주) 강석경	(주) 환상제주투어버스(주) 조영구
(주) 대성VIP고속관광(주) 김대훈	(주) 미래관광(주) 이정열	(주) 우도관광(주) 최병수	(주) 제주교통(주) 이현수	(주) 편안고속관광(주) 김홍수	
(주) 대한교통(주) 김재남	(주) 부민고속관광(주) 최창우				